

면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고 평안 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사역 소식

지난 10년간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과 가자 전쟁으로 충격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의 미래가 중동과 유럽 등의 안정 안보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혐오와 증오가 아이들에게 자리 잡지 않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전 코로나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은 저희 현지 센터가 다시 문을 열수 있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근에 문을 닫은 예전 센터 건물 주인이 예전보다 적은 렌트비를(약 한화 30만원)받고 센터를 다시 열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예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다 지불하지 못해 빛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건물 주인되는 분의 배려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7~8월 여름 방학이후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에 맞춰 센터를 다시 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에 맞춰 센터가 재정비하고 잘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가정 소식

요르단의 긴 여름 방학을 아이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책도 읽고 자율 학습, 봉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 밝고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저희 지역 센터가 다시 문을 여는데 있어서 재정비하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2. 저희 가정이 믿음 가운데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 갈수 있도록
3. 저희 가정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